오늘의 말씀

제목: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

말씀: 시편 131편 1-3절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는 기도이다. 기도는 특권이요 은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한 두 명이 아니다.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때에 모든 것을 이기며 강한 용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1) 기도 말고는 다른 _____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2) 하나님 알고 그의 _____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 나의 _____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 헌금	
주일 헌금	
십일조 헌금	
감사 헌금	
합계	

새로운 교회와 함께 하는 선교지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 (북 아프리카 사역)
터어키	SILKWAVE 실크 웨이브 선교회 (이슬람권 사역)
한인 2세권 교회	Deep Roots Church 깊은 뿌리교회 (New Jersey, USA)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2020년 2월 16일 제 2권 7호

"너희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호세아 10장 12절)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and seek the Lord" (Hosea 10: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 12: 30 PM — 인도: 김성민 목사 / Presider: Rev. Jason Kim

* 예배로의 부름 ..... 인 도 자
Call to Worship — Presider

* 찬 양 ..... 다 같 이
Praise — All Together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 같 이
Prayer — All Together

성경말씀 ..... 시편 131편 1-3절 ..... 설 교 자
Scripture Reading — Psalms 131: 1-3 구약 900 페이지 — Presider

말 씀 .....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1) ..... 김성민 목사
Message — Then How should we Pray? (1) — Rev. Kim

찬 양 ..... 365(484)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 다 같 이
Praise — Are You Weary — All Together

헌금/기도 ..... 다 같 이
Offering and Prayer — All Together

광고/환영 ..... 인 도 자
Announcement — Presider

* 찬양/헌신기도 ..... 은혜로다 ..... 다 같 이
Praise and Prayer — It is God's Grace — All Together

* 축 도 ..... 설 교 자
Benediction —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아픈 친구들)

지난주 가까운 친구 목사들의 소식을 모처럼 한꺼번에 듣게 되었다. 그런데 소식들이 그리 밝지 않았다. 한명은 암으로 고생하면서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중에 마지막 치료라고 한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 목사였다. 또 한 친구는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는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다가 이제 며칠 후면 정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한 명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지난 몇 달 동안 다리가 떨려서 진찰을 받아보니 혹시 파킨슨병은 아닌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약을 먹고 판정을 받아야 하는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가슴이 미어졌던 이유는 그 친구들 모두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하며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열심히 살며 사랑하며 나누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나같이 아프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다. 보통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한 기도가 많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입으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에 주인 되심을 확신하며 친구들이 건강하여 함께 늙어 갔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멀리 있는 것만도 안타까운데 아프기까지 한다니 마음이 우울해 지려고 한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우울해 하지 않았다. 모두 자신의 상황을 잘 받아드리고 그 가운데 힘을 내며 열심을 버리지 않고 나름대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자 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2-1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모두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러면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오히려 힘을 얻어야 할 것이다.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그만큼 거동이 불편해진다고 하여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이 건강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역사되리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친구 목사님들의 믿음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된다. 나는 펄쩍 뛰며 고통스러워하는데 막상 그 친구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갈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시작은 예수님이시고 아직도 영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끝이 아닌 천국으로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사랑의 만남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주 기도제목

1)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새로운 성도들 잘 정착 하도록
3) 새로이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영어회중)
4)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5) 열심히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6) 전 세계 폐렴으로 고생하는 나라들의 회복을 위하여
7) 우리가 꿈꾸고 있는 오아시스(쉼터) 사역이 구체적으로 준비 될 수 있도록

프랑스: 백남일, 김유경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터어키: 터어키 교회들의 위험한 중에 부흥을 위하여
깊은 뿌리교회: 목사님 부부의 영적인 건강과 성령 충만함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교인 동록서

교인 동록서가 준비 되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김성정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월 행사

사순절 시작 2월 26일(수)

6. 교회 웹 싸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

7. 감사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합니다.